디지털(0,1)왕국을 꿈꿨던 다윗

(역대상 17:1~27)

1.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2.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3.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5.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6.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7.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오늘 말씀 중심으로 <디지털(0,1) 왕국을 꿈꿨던 다윗>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디지털(0,1) 왕국을 꿈꿨던 다윗'

디지털 왕국을 꿈꿨다는 것은 실현시키지는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 왕국은 무엇일까요?

디지털은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법의 조합입니다. 이것이 수억 수조 수경씩 조합되어 모든 지식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날에야 언급되는 디지털 혁명의 시대를 이미 꿈꾸었다는 것입니다.

북유럽 발트해에 호랑이라고 불리는 에스토니아라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영토는 남한의 절반 정도이고 인구는 13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한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화상통화로 유명한 스카이프(Skype)라는 회사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해외송금 앱을 만든 트랜스퍼와이즈(TransferWise)도 있는데 이러한 첨단기술의 창업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기는 하지만 에스토니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에스토니아는 세계최초로 인터넷 접속권을 인권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전국을 무료 와이파이존으로 만들

어서 무선 인터넷이 되게 하였고, 2014년에는 역사에 남을 혁명적 선언을 하는데 세계 유일의 디지털 국가를 표방한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세계의 누구나 인터넷이 되기만 하면 에스토니아의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고, 내 몸은 다른 곳에 있을지라도 에스토니아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사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작기 때문에 그다지 와 닿지 않을 수 있지만, 에스토니아에서 디지털 시민권을 획득해서 회사를 창업할 경우 그 회사는 기본적으로 EU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이 디지털 시민권은 비자의 역할을 하거나 투표권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디지털 시민이 되면 에스토니아 국민이 누리는 모든 디지털 서비스를 똑같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당장 자본금 300만원만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한 시간 만에 에스토니아에 회사를 창업할 수 있고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를 창업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하기도 합니다. 현재 천만 명의 디지털 시민권을 목표로 했는데 135개국에서 1만 4천명이 디지털 시민권을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중에 실제로 기업 활동을 시작한 사람이 천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특이합니다.
에스토니아 영토는 남한의 절반 밖에는 안 되지만 전 세계에 깔린 인터넷 연결망 위에서 나라의 개념을 바꾸며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간단하게 에스토니아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 카페를 가입할 때에 생년월일이나 가입동기 정도를 적고 가입을 하듯이, 에스토니아의 시민권 취득도 그만큼 간단하다고 합니다. 즉 한 국가를 인터넷 상에서 카페로 만드는 것이고 카페의 회원 자격을 시민권으로 발급하는데 바로 디지털 원리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컴퓨터 혁명, 모바일 혁명, SNS 혁명, 데이터 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들을 사용하는데 이 모든 혁명을 가능케 한 것이 0과 1의 디지털의 원리입니다. 색깔조차도 0과 1의 조합으로 표현을 하고,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숫자조차도 컴퓨터가 인식하기 위해 0와 1의 조합으로 표현합니다. 음성 지식 모든 것을 디지털 원리로 기호화 하다보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20세기 말에나 보급이 되었지만 다윗은 통치하던 이스라엘이 디지털 국가가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현대에서는 0과 1의 디지털의 원리를 기계에 적용해서 아날로그시계도 디지털로 만들고, 카메라도 디지털로 만들고, 자동차도 디지털로 작동하게 하였는데 다윗은 이러한 원리로 세상을 통치하고 나라를 다스리기를 꿈꿨습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7장에서 이야기가 되었던 유명한 내용입니다. 다윗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아래에 있음을 안타깝게 여겨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영원한 나라가 다윗의 자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통치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생각해야 될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흔히 하나님의 집이고 거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전의 주목적은 진짜로 그곳에 하나님을 거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왕상8:13절에서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봉헌식 때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라고 하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라고 합니다.
다윗도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실 처소를 말한 것이지, 하나님 자신이 거하실 곳을 만들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할 처소로소의 성전을 만들려고 했던 의도는 바로 성전을 디지털 시민권의 발급처로 만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성전은 디지털 원리가 적용되는 현장입니다. 디지털 원리가 컴퓨터에 적용될 때에는 0은 꺼짐이고 1은 켜짐입니다. 성전에 와서 하는 일은 마음의 지성소를 이 세상에 대해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의 지성소는 내게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으리라고 믿어지는 존재를 담는 장소입니다. 우리나라의 태극기에 있는 건곤감리의 막대도 긴 것은 켜짐을 뜻하고 짧은 것은 꺼짐을 뜻합니다. 바코드도 굵은 선은 켜진 것이고 가는 선은 꺼진 것인데 0와 1의 다른 기호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신용카드같이 생긴 디지털 시민권을 발급할 때에 각 나라에 있는 대사관을 통해서 발급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대사관이 없어서 일본으로 가야 합니다.
성전은 디지털 시민권을 발급하는 장소이고, 이 디지털 시민권은 우리의 인격과 마음으로 받게 됩니다. 즉 이 디지털의 원리가 기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디지털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지성소가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찾을 때 이 세상 영역에 대해서는 꺼지고 하늘을 향해서만 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성취가 필요한데, 하나님을 갖는 것을 그 성취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민을 인격에 제공한 것이고 성전이 바로 이 시민권을 제공하는 장소로 법궤의 모양을 보면서 마음의 지성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강, 승진, 결혼, 외모로 기뻐하려고 하는 나를 번제단에서 죽임으로 끄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만족과 기쁨이 있어야만

사는 존재이고, 무엇인가로 마음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하늘을 향하게 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만족이 되어주십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건강이 없어서 그런 줄로 압니다. 혹은 승진이 안 되거나 배우자 문제인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이루어질 다윗 언약의 핵심인 메시아 왕국을 사는 사람들은 우울함의 원인을 더 이상 이 땅에서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갖지 못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땅에 대해서 죽고 하늘에 대해서 켜지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땅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건축 계획을 불허하시지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지성소에서 세상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기를 포기하고, 하늘에서만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켜지는 것입니다.
성전의 번제단에서 세상에 대해 죽음으로서 꺼지면 두 가지 켜짐이 일어납니다. 내 자신이 하늘을 향해 켜지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켜집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왕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다윗이 꿈꾸었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바람을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에 안 된다고 하셨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런 이야기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할 때에도 그러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겸손하게 해석한 것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다윗의 성전건축을 막으셨다고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있습니다.
성전은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 대에 세워지게 되는데 다윗은 이미 디지털 원리를 자기 인격에 적용하고 살았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그를 이김으로 기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골리앗에게 짐으로서 자기가 가진 것이 상실될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죽고 0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만을 기쁨과 만족의 원천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향해 살고 땅에 대해 죽었을 때에 다윗이 당면한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켜질 수 있는데 다윗은 이러한 원리에 입각하여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죽은 다음에 성전을 세우시려고 했던 것은, 다윗에게서 나타났던 디지털 원리적 삶을 성전을 통하여 만백성에게 다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디지털 왕국의 국민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역할은 디지털 왕국 시민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까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과 같은 시민권이 온 백성에게 주어지길 바라시며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성전건축에 얽혀있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번제단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곧 하늘을 사는 자로서 다시 태어남을 뜻합니다. 부활은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통과한 지점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음과 만날 때에 부활까지 함께할 수 있고 하늘을 향해 켜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우울하고 걱정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상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벌기 위해 승천하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세끼 시간을 들여 식사를 하듯이, 하나님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배를 채우기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만 켜질 때에 이 땅은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평강의 계획이 켜지면서 삶이 진행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아서 내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해서 켜진다면 두 가지가 동시에 꺼집니다.
하늘에 대한 배부름이 꺼지고 이 땅을 향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평강의 계획도 꺼질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꺼지면 하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켜지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켜지는데, 내가 세상에 대해서 켜지므로 십자가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면 하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꺼지고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꺼집니다.
다윗이 꿈꾸었던 성전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디지털 원리가 인격적으로 적용된 나라는 이제 주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십니다. 아무쪼록 디지털 시민권으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모든 천재들은 기계에 디지털 원리를 적용하기 위하여 분주하였지만, 우리들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내 인격에 디지털 원리를 적용함으로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

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